



보도 자료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			
배포 일시	2026.2.9.(월)				
담당 부서	전시기획팀	책임자	팀 장	추가영	(031-324-0761)
	전시기획팀	담당자	선 임	김혜정	(031-324-0762)

국립농업박물관, 세계 최대 규모의 이집트 대박물관과 손잡다
- 2027년 업무협약(MOU) 체결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-

-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은 2월 5일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이집트 대박물관(CEO Dr. Ahmed Ghoneim, 아흐메드 고네임)을 방문해 업무협의를 진행하고, 2027년 업무협약(MOU) 체결을 목표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.
- 이번 협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인 이집트 대박물관과 한국의 농업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전시 및 인적 교류 등 국제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. 양 기관은 상호 호혜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.
- 국립농업박물관은 ▲온라인 전시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협력 ▲박물관 운영 및 전시 기획 분야의 전문 인력 교류 등을 희망하였고, 이집트 대박물관은 국립농업박물관의 입장에 원치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▲이집트 대박물관 전시공간을 활용한 한국의 곡식, 조리방법을 망라하는 전통음식 관련 전시 개최 ▲한국의 발전된 ICT, 로봇 관련 기술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다.
- 양 기관은 협력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 중 세부 협력 내용을 조율하고, 단계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해가기로 했다.

-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 관장은 “농업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대박물관과 협력하게 된 것은 국립농업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” 라며 “앞으로도 농업의 가치를 세계적 관점에서 공유하고,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나아가겠다” 라고 말했다.



[사진설명] 국립농업박물관 오경태 관장(우측)과 이집트 대박물관 아흐메드 고네임 관장(좌측)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

[사진설명] 국립농업박물관 대표단이 이집트 대박물관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.